

등록금 14% 인상

복지문제등 가합의, 등록은 28일부터 3일간

학교측 대표와 양캠퍼스 총학생회가 지난 21, 22일 최종협상한 끝에 91학년도 등록금을 14%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캠퍼스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지난21일 부총장실에서 학교측부총장과 기획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91학년도 등록금협상에 대한 가합의를 체결했다.

예결위와 학교측의 가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가계정은 등록금채원으로 지출하지 않는 ▲장학금은 7천백만원 증액 ▲

실현실습비예산공과와 더불어 집행과정에 학생의견이 반영되도록 교무위원회에 건의하는것 등이다.

또한 예결위는 가합의한 결과를 가지고 23, 25일 양일간 학생들의 찬반을 묻는 투표를 과단위로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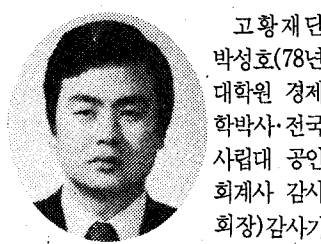
학교측은 등록금 협상이 진척됨에따라 25일부터 등록고지서를 발송하며 납부기간을 28일부터 3일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수원캠퍼스 총학생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지난22일 학교측 부총장과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등록금14%인상 및 입학금 동결 등을 골자로 하는 91학년도 등록금 인상률에 잠정합의했다.

이날 협상안의 내용은 그동안

잠정합의함에 따라 이미 18%의 인상률로 납부된 신입생 등록금의 차액은 91년 2학기 등록시 조정하여 납입키로 하였으며 1차등록을 3월28일부터 3일간이며 최종등록일은 4월9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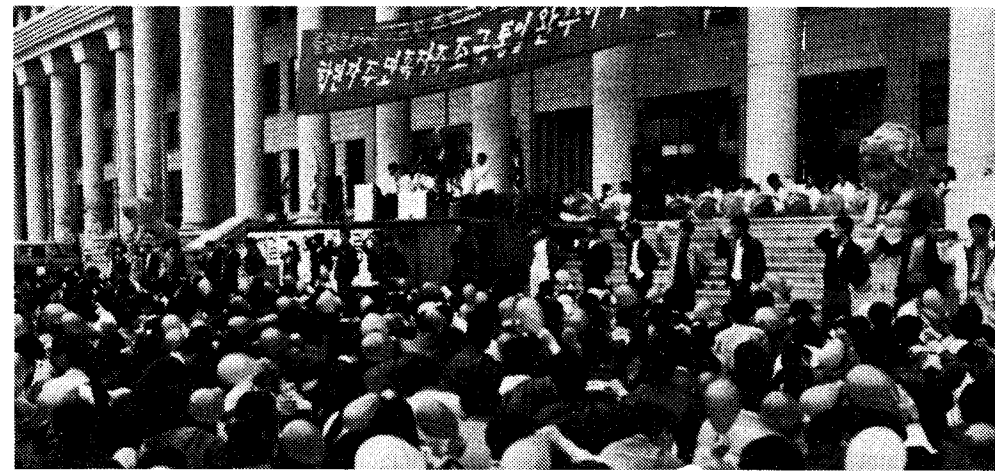
고향재단 박성호감사
'대학심의회' 위원 위촉



고향재단 박성호(78년 대학원 경제학박사·전국 사립대 공인 회계사 감사 회장)감사가 지난 8일 교육부의 대학교육 심의회 연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동심의회 연구위원으로 위촉된 박감사는 1차적 업무로 대학입시 제도 개선에따라 여론의 조사·검토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광주·대구·대전에서 열리고 있는 공청회에 참석하고 있다.

또한 박감사는 89년도부터 매년 양캠퍼스에 1백만원씩 장학금 2백만원을 본교에 기탁해 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일 체육교육관 앞 혁명광장에서 있었던 총학생회 진군식 모습.

학원·민족자주 위한 총단결 결의 제23대 총학 진군식 거행, 새집행부 구성도

수원캠퍼스 제23대 총학생회 진군식이 지난 20일 체육교육관 앞 혁명광장에서 열렸다.

김봉걸(공대·화공) 수원캠퍼스 부총장등 각 부처장과 김봉우 총민주동맹회장 등이 참석한 이번 출범식은 국민의례를 시발로 각 대표 인사말, 고사, 각 단체 운영위원 소개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자리에서 김봉걸 부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학의 본분인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학생회가 활성화되어 경회 발전에 이바지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단상에 오른 이재표(중문·4)총학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원자주, 민족자주 그날을 위해 학우들이 총단결해 나가자"며 결의를 밝혔다.

한편 이번 진군식에는 현재 수감상태에 있는 전 총학생회장 이기현군 어머니와 문광식부총학생회장의 어머니, 이재표 총학생회장의 어머니가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새롭게 구성된 제23대 총학생회 집행부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책위원장-김규철(산공·4) △사무국장-김정훈(행정·4) △기획부장-이석(행정·4) △총무부장-송성훈(유전·4) △사외2부장-이정민(행정·4) △연대사업국장-허현무(우주·4) △문화국장-김봉균(환경·4) △자료조사부장-유철(토목·4) △교실위원장-이관행(행정·4) △예결위원장-김형달(화공·2) △인복위원장-김남수(일문·4)

한편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오는 28일 오후2시 노천극장에서 '제23대 총학생회 진군식'을 갖는다.

각 단과대학 진군식 후에 거행될 이번 총학생회 진군식은 최성용(법학·4)부총학생회장의 사회로 길놀이와 함께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학생회의 91년 사업계획과 전망을 발표하는 총노선 선포와 결의가 있으며 교문앞에서 고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 졸업준비위 구성 위원장에 신우동군 선임

수원캠퍼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가 지난 20일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졸준위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선임된 신우동(전자·4)군이 맡게 되었으며 각 단과 학생회장과 4학년 과대표의 추천을 통해 선임되는 단과 졸준위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졸준위는 앨범분과, 취업복지분과, 대외협력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되며, 총대의원의회의 인준을 거쳐 확정되게 된다.

이번 졸준위 구성에 대해 이병식(경영·4) 앨범분과장은 "산업대 졸준위 선임이 아직 안된 상태이나 현상황을 고려해 불태 앨범업자 시장조사등 지급부터는 활동에 들어가야하므로 불가피하게 구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제3회 청년강좌실시 27일, 산대 학생회 주최

수원캠퍼스 산업대학 학생회는 오는 27·28일 양일간에 걸쳐 114

서울 전자계산소 설치

서울 종합정보처리 수원 이공계연구중심

서울캠퍼스에도 전자계산소가 설치된다.

한대의 2층에 개설될 본 전산소는 3억여원을 들여 CDC사의 CD4680 대형기종이 도입되며, 이와 함께 LAN(근거리 종합정보통신망)도 가설된다.

이로써 수원전산소에서 전담하던 학사 및 행정 업무 일체가 서울로 이관되며 수원전산소는 이공계 중심의 연구 전산소로 정착되게 되었다.

그러나 LAN 설치 작업의 방대함과 컴퓨터 설치상의 문제점등으로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N-PLUS 시스템과 서양서 정리기구인 BIBLO-FILE 시스템이 소개됐다.

고경석(문리·국문)중앙도서관장은 "예산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한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 크 관심에 부응, 계속적으로 도서관 전산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인사말과 함께 전망을 밝혔다.

전대협 학추위원장에 한철수군 불가침 선언 위한 천만인 서명 운동 전개

본교 한철수(신방·4)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이 지난 14일 부산 대학교에서 열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 중앙위원회에서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제2기 전대협 학생추진위원회(이하 학추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한철수총학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국통일은 반미자주투쟁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 만큼 미제국주의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95년을 통일년으로 기필코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대협 학추위는 91년 조국통일운동의 투쟁방향을 △범민족연합 강화를 통한 전민족적 통일방안 함의를 확보하는 투쟁 △티스 퍼트리트훈련 반대투쟁과 불가침선언 채택 투쟁 △6월경에 이루어진 '아시아-한반도 평화와 비핵지대화'를 위한 국제대회에 적극 참석 등을 통한 군사적 긴장 완화 투쟁 △제반 반통일 악법·기구의 철폐와 양심수 석방등을 기본으로 민족대단결을 더욱 심화시키

'동연' 31일까지 신규등록 대표자회의에서 최종결정

서울캠퍼스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신규동아리와 기존의 동아리로부터 등록을 받는다.

신규동아리는 3개분과 이상 추천, 3분의 1 이상의 각 동아리회장 추천, 분과장 추천 중 하나의 추천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분과의 동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다.

등록시 구비서류는 등록신청서, 서약서, 회원명부(20인 이상 자필서인), 사업및 예산계획서로 신규 동아리와 기존의 동아리가 같이 제출해야 되며 신규동아리는 추천서 하나를 더 내야 된다.

한편 동연은 동아리내의 공간 부족문제를 서로 인식하여 학생회관 5층과 7층의 화장실을 없애고 동아리방을 신설할 예정이며 공식일정은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하게 된다.

서약서, 회원명부(20인 이상 자필서인), 사업및 예산계획서로 신규 동아리와 기존의 동아리가 같이 제출해야 되며 신규동아리는 추천서 하나를 더 내야 된다.

한편 동연은 동아리내의 공간 부족문제를 서로 인식하여 학생회관 5층과 7층의 화장실을 없애고 동아리방을 신설할 예정이며 공식일정은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제 직장이나 집에서도 대학주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힘든 일과 속의 여유 대학주보와 함께하십시오

경희의 역사는 명확한 목적의식과 진취적인 패기로 이어져 가고 있으며 그곳에는 언제나 '대학주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대학주보'는 경희인의 思考와 理想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종합 학술· 시사 주간지입니다.

대학주보사



대학주보 정기구독신청요령

졸업후에도 '대학주보'의 정기구독을 원하는 사람은 직접 본사에 오셔서 신청하시거나 우편이나 FAX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주소:130-70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신문방송국

◇신청 전화:(02)961-0094 (02)963-5849

◇FAX:(02)963-5849

◇정기구독료:1만원(1년 25회 276면 각회 1부기준)

◇기타:정기구독 신청서는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시고 가능한 본사에 마련되어 있는 대학주보 정기구독 신청서를 작성, 접수시켜 주십시오.